

함안군 시장개척단, "'홍콩' 함안단감 수출을 교두보로 중국시장 두들릴 것"

등록 2016.12.06 13:24:32 | 수정 2016.12.28 18:01:47



【함안=뉴스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 해외시장개척단이 4일 홍콩 대형마트인 360슈퍼에서 함안단감 판촉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은 함안단감 홍보를 하고 있는 차정섭(가운데) 함안군수의 모습. 2016.12.06. (사진=함안군 제공) photo@newsis.com

【함안=뉴스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이 '함안단감'을 들고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함안군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홍콩을 방문해 홍콩 대형마트인 360슈퍼와 테이스트 슈퍼 2군데에서 함안단감의 우수성을 알리는 판촉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함안단감의 수출 촉진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판촉 행사에는 차정섭 군수를 단장으로 유수필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시설원에 특작과장, 이성환 NH농협함안군지부장, 손문규 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와 생산농가 등이 참가했다.

판촉전에 앞서 시장개척단은 홍콩 현지 수입업체인 톱 윌(Top Weal)사(대표 케네스 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갖고 수입업체와 함안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단감 수출 사이즈의 다양화·규격화를 비롯해 군의 농특산물인 포도, 멜론, 수박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홍콩은 자유무역지대로 신선 과일 수입 관세가 따로 적용되지 않기에 90% 정도가 수입 상품이다.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신선 농산물이 수입되고 중국 중상류층의 수요 파락이 가능해 중국 진출 교두보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이번에 함안군은 2017년 34만 달러, 2019년까지 총 16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유수필 시설원예특작과장은 "함안단감은 산지 과수원이 80% 이상이어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아삭아삭'해 상품성이 뛰어나다"며 "경남도 내 생산량 5위를 바탕으로 당분이 많은 함안단감 생산농가의 수출 교두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안=뉴스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 해외시장개척단이 4일 홍콩 현지 수입업체와 함안단감 수출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있다. 사진은 함안단감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차정섭(우측에서 두번째) 함안군수의 모습. 2016.12.06. (사진=함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지자체와 국가 기관과의 협업도 꾀하고 있다.

경남도의 정기 해외 박람회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본부를 통해 관내 생산농가의 수출에 도움을 줄 계획도 잡고 있다.

이번 출장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은 aT홍콩지사를 방문해 홍콩시장 현황을 청취하고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함안 농특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함안군 시장개척단은 현지 수입 과일 도매시장을 비롯해 백화점, 슈퍼 등을 직접 견학하며 현지 유통 실태와 함께 수출 가능한 함안 농산물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판촉 행사에 참가한 차정섭 함안군수는 "이번 판촉 행사와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함안단감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해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함안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동남아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올해 첫 단감 수출을 실시했으며 내년 초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에 총 300t(35만 달러)의 물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sk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